

테마 있는 전북농촌유학 “신청 꼭~”

도교육청, 오늘부터 20일까지 유학생 모집... 서울 이외 지역까지 확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온라인을 통한 2023년 전북농촌유학 설명회를 갖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단위의 농촌유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는 유학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유학생도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모집한다. 또한 농촌유학 협력학교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확대해 도시지역 중학생들도 전북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학생 모집기간은 14~20일까지다.

서울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로, 서울 이외 지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농촌유학은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운영된다. 가족체류형은 가족 또는 일부가 이주해 마을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고, 홈스테이형은 농가에서 아이를 맡아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한다. 또 유학센터형은 학생 여러 명이 유학센터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농촌유학 협력학교 수도

올해 6개교에서 내년에는 22개교로 크게 늘었다.

정읍 영원초·용동초·이평초, 김제 벽량초, 완주 동상초·운주초·운주중, 진안 조립초 무주 적상초·무풍초, 장수 산서초 임실 지사초·대리초·창음초, 순창 시산초·인계초·팔덕초·생치초·동산초·적성초, 고창 동호초, 부안 영진초 등이다.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48가구, 홈스테이형 3가구, 유학센터형 3개다.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교육청에서 30만원, 전북도에서 20만원 등

월 50만원의 유학경비를 지원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농촌유학은 저마다 제 빛깔을 가진 지역의 스토리를 교육과정에 담아 운영하는 지역 테마가 살아있는 특별한 ‘농촌유학’이라면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테마식 농촌유학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전북농촌유학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하반기 농촌유학 시범운영에 참여한 서울학생 27명 중 건강상의 이유로 1명을 제외한 26명이 연장신청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전북농촌유학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생체안전성연구소 소속 임재구 교수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 대한수의학회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섰다.

생체안전성연구소 학술 성과 ‘주목’

전북대 임재구 교수, 수의학회 학술대상 수상 등 성과

전북대학교 생체안전성연구소(소장 김법석)가 올 한해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올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연구소 소속 임재구 교수(수의전염병학)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 대한수의학회에서 ‘학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수의학 학문 발전에 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우수 과학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임재구 교수는 최근 SARS-CoV-2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수의전염병에 대한 연구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임 교수는 추계 학회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서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박쥐에서 분리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석찬 박사는 대한수의학회에서 올해 신설된 대학원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K-Med(융합인재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년 간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박 연구원은 다양한 면역증강제를 이용한 SARS-CoV-2 재조합 단백질 백신의 바이러스 전파능 억제 효능 평가에 대한 연구 주제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체수법 대학원생이 태국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 아시아 야생동물의학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제38차 한국독성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다람 핵심연구교수, 제34차 한국수의병리학회 학술대회에서 관민택 대학원생, 춘계 및 추계 대한수의학회에서는 정창기 핵심연구교수, 홍정민 핵심연구위원, 민원스래이 나은지, 유레이드, 오병관 대학원생도 각각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또한 임재드 후세인 대학원생은 지난 4월 열린 춘계 인삼학회 및 제13회 국제인삼심포지엄에서 각각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한편, 전북대 생체안전성연구소는 생명체를 위한 최적 환경의 보존 유지와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1년 설립돼 수의과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도민 아픔 위로하는데 작은 보탬 되길”

도교육청, 적십자 특별회비 300만원 전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5층 회의실에서 이선홍 회장과 권영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가 특별회비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선홍 회장은 “올해도 적십자 특별회비로 사랑을 전해 준 서거석 교육감

과 도교육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전달해 준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전북교육청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십자가 소외된 이웃에

게 온정을 전해주며, 청소년들에게는 안전 및 재난예방교육, 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공공의료 지원비·자선·수해·산발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구호 활동 지원비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등으로 사용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응급구조과

1급 구조사 국가시험 32명 합격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는 2022년도 제28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32명이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치러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사에서 이 대학 응시자 33명 중 32명이 합격해 전국 합격률을 상회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는 1급 응급구조사 출신 전임 교수 5명과 각 분야별 전문의 의사 겸임 교수들로 내·외과적 응급상황별 전문 응급처치 교육 및 실습, 심장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의료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종합 실습, 의외기관 임상 실습 및 소방차 구급차 동승 현장실습으로 현장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 보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하계·동계 해외 스쿠버 교육, 수상 인명구조원 양성 교육, 생존 수영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해양에서의 역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기전대학 응급구조과 학과장인 원영덕 교수는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사를 위해 3학년 1학기부터 교수진 특강 및 개별 상담을 통해 국가고사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응급구조과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생 관리를 통해 전국 합격률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 최고의 1급 응급구조사 양성 대학으로 취업에 강하며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급 응급구조사들을 배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대입 정시 대면 진학상담실 운영

내일부터 22일까지... 17~18일 전주·군산·익산, 17일 정읍·남원·김제 교육지원청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공교육 차원의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 정시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5~22일까지 평일 오후 4~10시에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전주·군산·익산은 17일과 18일, 정읍·남원·김제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대면상담을 한다.

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http://www.

jeogak/jiro)에서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상담기간 동안 1인 1회 신청 가능하며, 추가 상담을 원할 경우 현장 접수 또는 당일 상담만 가능하다. 다만,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정 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교사 30여 명(대학교형 상담교사

19명 포함)을 배치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고 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부모는 수능 성적 자료 등을 지참하고 참여하면 된다.

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 강세용 장학사는 “상담시간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미리 희망 대학의 전공을 파악하고 오면 보다 알찬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17일에는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정시 지원 전략 안내를 위한 입시설명회도 마련돼 있으니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교내경진대회 개최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13일 2022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 학교 수상생 20명을 대상으로 교내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4개 팀이 참가해 △임실군 낙농업학교(임실학교), △임실드림피자센터, △진안에서 이거저거, △캠핑? 캠핑! 등 지역 내 인구 소멸 방지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임실군 낙농업학교(데어리스크)를 발표한 우리조가 최고조 팀이 수상했다.

심사위원인 임실군 경제교통과 정일범 팀장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아이디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임실군의 낙농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이서하(임실향리과 2년)학생은 “전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인구소멸과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타 지역의 청년들이 전라북도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기전대학은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 학교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정은성 기자

지하수 내 질산·인산염 동시 제거 평가 ‘우수’

전북대 강지영 대학원생, 지질과학연합회 학술대회서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강지영(박사과정, 지도교수 김성우) 대학원생이 최근 열린 2022년도 추계지질과학연합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발표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지영 학생은 ‘지하수 내 질산염 및 인산염 동시 제거 평가’를 주제로 포스터 부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부영양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질산염 및 인산염을 동시에 제거하는 기법을 개발, 칼럼실험을 이용해 기법의 동시 제거 성능을 평가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동시 제거 기법을 이용해 지하수 내 두 오염물질을 제거해 지하수에서 지표수로 이동하는 영양염류의 유입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지영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동시 제거 기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현장 실증성을 통해 국내 부영양화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ICC 특화분야 공유·협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전주비전대 LINC 3.0사업단, 제주한라대와 토론회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단(LINC 3.0)은 13일 제주한라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기업협업센터(ICC) 특화분야 공유·협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주비전대학교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과 제주한라대학교 차영주 LINC 3.0 사업부단장과 각 대학의 ICC분야 센터장과 실무관

제자들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ICC성과 확산을 위한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 및 기술지도에 대한 운영 성과를

공유, 산업체 공동연구기술지도와 같은 대학별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대학 간 실질적인 공유·협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간의 토론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섰다.

차영주 부사업단장은 “타 대학과의 공유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학별 ICC가 보유한 특화분야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승훈 사업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수행한 지구력과 마시지불과 같은 산학협력 결과물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도내 기업체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해외 호텔 방문 면접 진행

전주대학교 호텔경영학과는 학과 특성화 사업으로 내년 2월 6~9일까지 학생 6명과 인솔 교수 2명이 싱가포르 현지 호텔을 직접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호텔경영학과는 영어면접으로 학생 6명을 선발해 모의 면접을 보는 등 교수진과 학생이 함께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면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현장 채용 면접을 위해 방문하는 호텔에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과 보코 호텔 플루트 호텔 등 5성급 대형 호텔 세 곳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박지연 학생(3년)은 “우리 대학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한 목적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서였다”며 “이번에 직접 해외 현지 호텔에 가서 면접을 보는 프로그램에 선발돼 너무 기쁘고 이런 좋은 기회를 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영국 학장은 “이번 해외 현지 호



텔 방문 면접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면접을 보는 경험을 하고 취업까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며 “아울러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호텔 발굴과 현지 호텔 관광 대학과의 관계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올해 재학생과 졸업생 28명이 싱가포르와 괌, 사이판, 베트남에 있는 대형 호텔에 취업하는 등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343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정은성 기자